

- 주요 뉴스: FOMC 의사록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
 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의 과도한 금리인상은 부적절
 - 중국 시진핑 주석, 미국의 경제 제재 극복을 위해 기술자립 강화할 방침
 - 일본은행 통화위원, 고물가 위험 경고, 완화정책 중단은 경제 여건에 좌우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간축기조 지속 의지 재확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하락[-4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 Stoxx600 지수는 은행주 약세 등으로 0.3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완화가 반영
유로화가치는 0.4% 하락, 엔화는 0.1% 절상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자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1.4원, -3.5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주요지표					주요지표				
		2/22일	2/21일	전일대비			2/22일	2/2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91.1	3,997.3	-0.16%	국채금리 10y	미국	3.92%	3.95%	-4bp
	유럽	462.22	463.77	-0.33%		독일	2.52%	2.53%	-1bp
	중국	3,291.1	3,306.5	-0.47%		영국	3.60%	3.61%	-1bp
	일본	27,104	27,473	-1.34%	CDS 5y	한국	46bp	46bp	0bp
	한국	2,417.7	2,459.0	-1.68%		중국	72bp	73bp	-1bp
	달러지수	104.54	104.18	0.35%	위험지표	EMBI+	-	392	-
유로화	1.0605	1.0648	-0.40%	VIX		22.29	22.87	-2.54%	
환율	엔화	134.84	135.01	0.13%		WTI유	73.95	76.16	-2.90%
	위안화	6.8929	6.8795	-0.19%	원자재	구리	417.7	422.6	-1.16%
	원화	1,304.9	1,295.9	-0.69%		금	1,825.4	1,835.1	-0.5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FOMC 의사록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

- 1/31~2/1일 개최된 FOMC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리인상 폭을 0.25%p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.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, 이를 목표(연율 2%)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피력. 일부 위원은 0.50%p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
- 최근의 금융여건 완화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,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. 아울러 인플레이션 및 이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로 연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진단도 제기
- 시장에서는 지난 번 FOMC 이후 물가, 고용,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. 이에 당초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금리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
- 한편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, 연방기금금리(현재 4.50%~4.75%)는 6월 최종금리(5.25%~5.50%)에 도달한 이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(5.00%~5.25%)에는 0.25%p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전망. 3월 FOMC에서 0.25%p, 0.50%p 인상될 가능성은 각각 76.0%, 24.0%
- 이번 FOMC 의사록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으며(BMO Capital), 위원들은 대부분 관망(wait-and-see) 입장을 나타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진다면 0.50%p 인상 주장은 늘어날 전망(LPL Financial). 이에 투자자들은 시장 역풍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대비할 필요(Morgan Stanley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중요

- 블라드 총재는 좀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해야 인플레이션 제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발언.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 가운데 다시 강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에, 지금과 같이 노동시장이 양호한 경우가 금리인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제공한다고 설명

■ IIF, '22년 전세계 부채는 전년비 감소.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에 기인

- '22년 전세계 부채는 '21년에 비해 4조달러 줄어 300조달러를 하회. 전세계 부채가 전년비 기준 감소한 경우는 '15년 이후 처음. 이번 결과는 경제성장 지속 및 높은 물가상승률 등이 주요 원인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의 과도한 금리인상은 부적절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9월까지 매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으며, 금리는 이미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평가. 한편 최근 금융시장은 최종금리 관련하여 다소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언

■ 독일 2월 Ifo 기업여건지수, 4개월 연속 상승. 향후 경기회복 기대가 증가

- 2월 Ifo 기업여건지수는 91.1을 기록하여 1월(90.1) 대비 높은 수준. 독일 경제는 점진적으로 부진한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고(Ifo의 Clemens Fuest) 향후 경기 회복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(Union Investment의 Joerg Zeuner)
- 한편 독일의 1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(확정치)은 9.2%를 나타내 작년 12월(9.6%) 대비 하락. 다만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상승(-1.2%→-0.5%).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최근에는 하락세가 명확하지 않은 편(Commerzbank)

■ 중국 시진핑 주석, 미국의 경제 제재 극복을 위해 기술자립 강화할 방침

- 미국의 수출 및 첨단기술 관련 통제에 맞서기 위해 핵심 기술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. 또한 기초과학을 강화하여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립의 길을 가야 한다고 부연

■ 일본은행 통화위원, 고물가 위험 경고. 완화정책 중단은 경제 여건에 좌우

- 타무라 위원은 과도한 물가상승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.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중단은 경제 상황, 임금 상승 속도, 물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언급. 한편 완화정책의 장기화는 혁신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2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2년 4/4분기 성장률(속보치), 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채권수익률, 연준의 통화긴축 영향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- 블룸버그

(Bond Yields are Jumping at Federal Reserve Phantom Shadows)

- 한동안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고 연준의 통화긴축 전망이 다시 강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% 수준에 근접. 하지만 연준 위원들 가운데 0.50%p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위원들은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신중
- 또한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, 1월 고용의 큰 폭 증가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한 일시적 현상. 2월 S&P Global 종합 PMI가 8개월래 최고치 기록했으나 제조업 PMI는 상승이 제한적. 경기 연착륙을 확신하기는 아직 어려운 편
- 향후 연준이 큰 폭의 금리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소폭 인상 후 해당 수준의 장기간 유지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. 근본적으로 경기상황은 유동적이며, 이에 채권시장의 향방은 불투명. 채권시장은 이미 부정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에 과도하게 회의적 시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

■ 선진국, 경기침체 진입 시점이 지연되겠으나 가능성은 높은 편 - Suttle Economics

(The global and financial outlook in a shocking world)

-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 긴축 영향이 누적되고 있으며,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전망.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기부진이 현저할 소지. 신흥국의 경우 중국 가계의 소비 확대가 긍정적이나 러-우 전쟁의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, 터키 경제 악화 등은 위험요소로 작용
- 한편 1월 글로벌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양호한 모습이었는데, 이는 작년 4/4분기 중 악화된 지표들의 기저효과 등에 기인. 2~3월부터는 경제지표들도 다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

■ 연준의 양적긴축, 시중은행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QE has become 'Hotel California' for central banks)

- 최근 은행이 연준의 양적긴축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. 양적완화 시 연준의 채권매입 자금은 시중은행으로 이동. 은행은 해당 자금을 부채로 계상하지만 연준은 이를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인식. 은행은 늘어난 지급준비금으로 신용한도 확대
- 한편 양적긴축 시 은행은 신용한도 축소가 적절. 하지만 여타 담보자산으로 감소한 지급준비금을 대체하여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신용한도를 확장. 이에 은행권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면 통화당국은 양적긴축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

■ 글로벌 경기,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겨울철에 견조한 양상 시현 - WSJ

(Global Economy Shows Signs of Winter Resilience)

- 최근 미국과 유로존, 영국의 2월 S&P Global 종합 PMI 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약화. 최근 IMF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0.2%p 상향하며 견조한 수요와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전망
- 다만, 점차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으며, 이에 양 지표가 서로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각국의 물가 목표치 달성 시기는 지연될 소지

■ 미국 기업투자,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에 일조 - Financial Times

(The other source of US strength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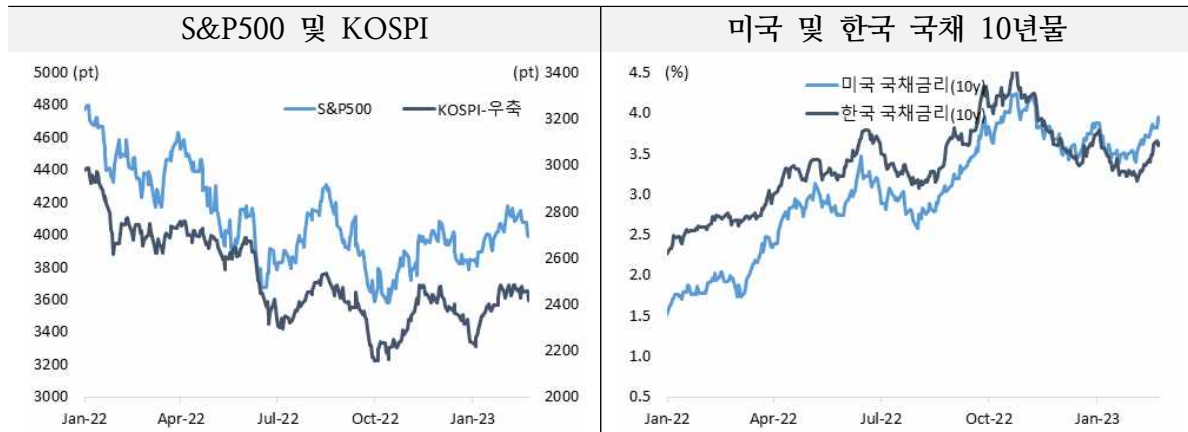
■ 미국과 유럽 경제,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불구 상승 압력은 지속 - 블룸버그

(Inflation's Slowdown Is Less Than Meets the Eye)

■ 중국,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해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- Financial Times

(China turns to foreign investors to revive property sector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